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10. 03. ~ 10. 09.

전남농업정보

105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양념채소(건고추·마늘·양파·대파) 관측
- 엽근채소(배추·무·당근·양배추·감자) 관측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여수 농수산물 LA한인축제로서 3억 2천만원 매출 올려
- 제주산 레드키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수출 성공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여주 2기작 가을 시설재배기술 개발
- 순천대, 한우 산학연협력단 생산비 절감 성과

정책동향

- 16년산 쌀, 연내 시장격리 등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발표
- 건고추 '경계경보' 발령 및 추가 수급대책 추진

사업신청 및 홍보

- 농식품 홍보 미디어기자 위촉식 가져
- 대한민국 농식품 일자리 정보! 한 곳에서 한 눈에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보다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0~3mm)보다 적겠음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양념채소 (건고추·마늘·양파·대파) 관측
- ▶ 엽근채소 (배추·무·당근·양배추·감자) 관측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2

- ▶ 광양시, 빅데이터 활용 작물 생육·수확량 예측 프로그램 개발 첫발 떼
- ▶ 곡성군, '귀농인의 집' 입주문의 쇄도
- ▶ 고흥군, 농수산물 가공업체 수출역량 강화 총력
- ▶ 보성군, 축산 경쟁력 강화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 ▶ 화순군,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목 '얌빈' 수확 한창
- ▶ 강진군, 딸기 정식 후 재배관리 노하우 전수받다
- ▶ 해남군, '해남황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추진
- ▶ 장성군, 북일면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 투입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0

- ▶ 여수 농수산물 LA한인축제서 3억 2천만원 매출 올려
- ▶ 제주산 레드키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수출 성공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2

- ▶ 패션푸르트에 발생하는 신종바이러스 2종의 병징 및 특성
- ▶ 파파야 관상용 분 재배를 위한 적정 분 크기
- ▶ 왕지네 대량생산에 적합한 용토 및 사육밀도
- ▶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한우 섬유질 배합사료 현장 실증
- ▶ 태풍 후 농작물 관리요령
- ▶ 여주 2기작 가을 시설재배기술 개발
- ▶ 사일리지 품질 최고인 사료용 보리 '다청' 개발
- ▶ 재배 쉬운 우리 품종 느타리 솔타리 나왔다
- ▶ 남부지역 가을 감자 재배지 감자역병 발생 예보
- ▶ 순천대, 한우 산학협력단 생산비 절감 성과
- ▶ 앞으로 갈색젖소 우유 먹을 수 있다

❁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36

- ▶ 초음파진단관리사 (출처 : 농촌진흥청)



❁ 정책 동향 38

- ▶ '16년산 쌀, 연내 시장격리 등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발표
- ▶ 건고추 '경계경보' 발령 및 추가 수급대책 추진

❁ 해외 농업정보 41

- ▶ 콩과작물 연구개발 기술 태국에 전수
- ▶ 일본,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검토 본격화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10. 7.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옥수수 가격 하락세에 동조하며 전일 대비 0.3% 하락 마감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달러화 강세 및 중서부 지역의 건조기후 예보로 인해 전일 대비 하락 마감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수확이 진행되고 기록적인 수확량이 예측이 되며 전일 대비 0.2% 하락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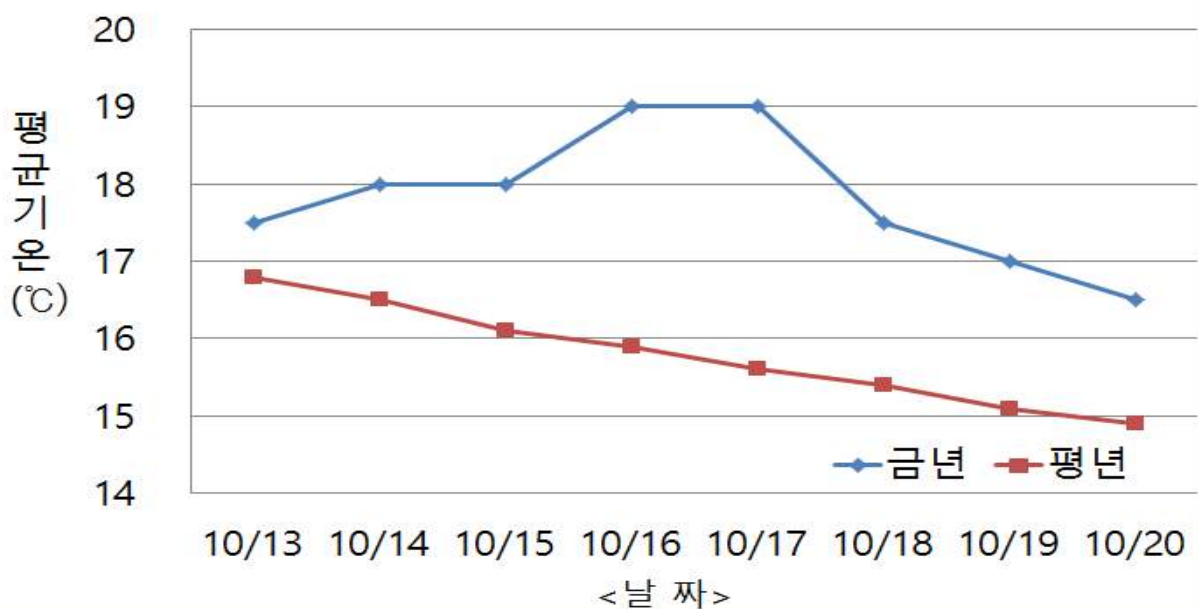
- ▶ 농식품 홍보 미디어기자 위촉식 가져
- ▶ 대한민국 농식품 일자리 정보! 한 곳에서 한 눈에
- ▶ 결실의 계절, 풍성한 가을이야기를 '소비공감'에서 만나보세요!
- ▶ 한글날 특집 : 틀리기 쉬운 낱말(농업용어)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7.8	15.8	2.0	23.6	21.8	1.9	12.0	10.9	1.1	1.0
10. 13.(목)	17.5	16.8	0.7	23.0	22.7	0.3	12.0	11.9	0.1	1.8
10. 14.(금)	18.0	16.5	1.5	25.0	22.5	2.5	11.0	11.6	-0.6	1.3
10. 15.(토)	18.0	16.1	1.9	25.0	22.1	2.9	11.0	11.2	-0.2	1.0
10. 16.(일)	19.0	15.9	3.1	23.0	21.9	1.1	15.0	11.0	4.0	0.9
10. 17.(월)	19.0	15.6	3.4	25.0	21.6	3.4	13.0	10.6	2.4	0.7
10. 18.(화)	17.5	15.4	2.1	23.0	21.3	1.7	12.0	10.4	1.6	0.6
10. 19.(수)	17.0	15.1	1.9	23.0	21.1	1.9	11.0	10.2	0.8	0.8
10. 20.(목)	16.5	14.9	1.6	22.0	20.9	1.1	11.0	10.0	1.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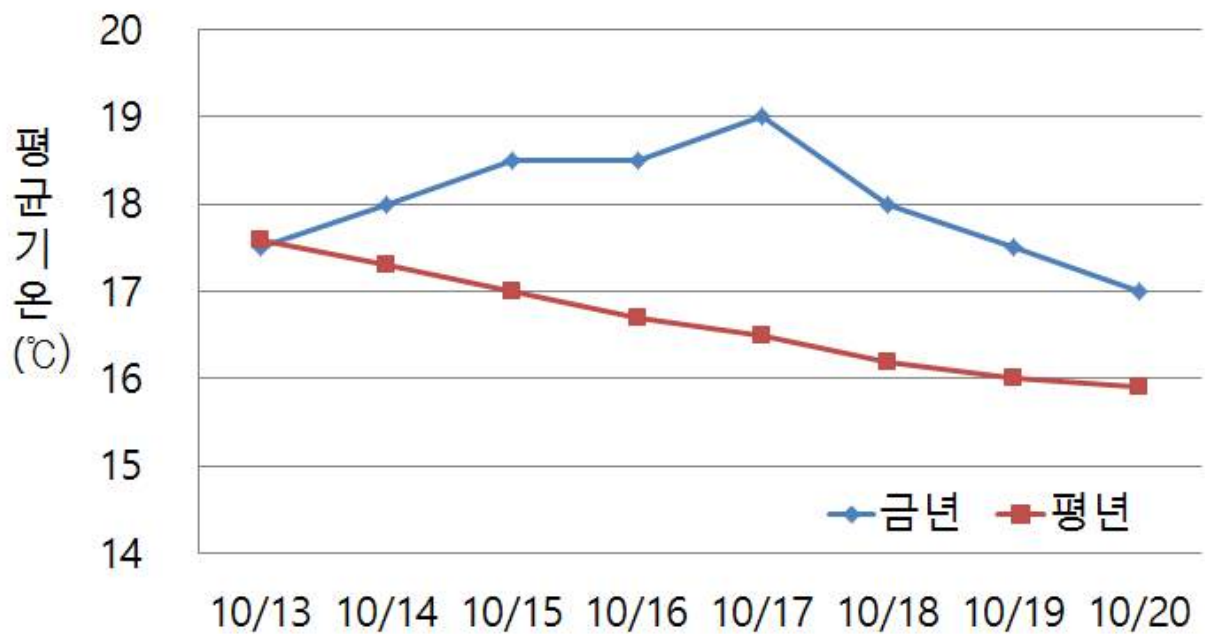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8.0	16.7	1.4	22.4	22.0	0.4	13.6	12.6	1.1	1.0
10. 13.(목)	17.5	17.6	-0.1	21.0	22.9	-1.9	14.0	13.5	0.5	2.1
10. 14.(금)	18.0	17.3	0.7	23.0	22.5	0.5	13.0	13.2	-0.2	1.2
10. 15.(토)	18.5	17.0	1.5	24.0	22.2	1.8	13.0	12.8	0.2	0.9
10. 16.(일)	18.5	16.7	1.8	22.0	22.0	0.0	15.0	12.7	2.3	0.8
10. 17.(월)	19.0	16.5	2.5	24.0	21.7	2.3	14.0	12.4	1.6	0.7
10. 18.(화)	18.0	16.2	1.8	22.0	21.5	0.5	14.0	12.2	1.8	0.5
10. 19.(수)	17.5	16.0	1.5	22.0	21.4	0.6	13.0	11.9	1.1	0.6
10. 20.(목)	17.0	15.9	1.1	21.0	21.4	-0.4	13.0	11.7	1.3	0.8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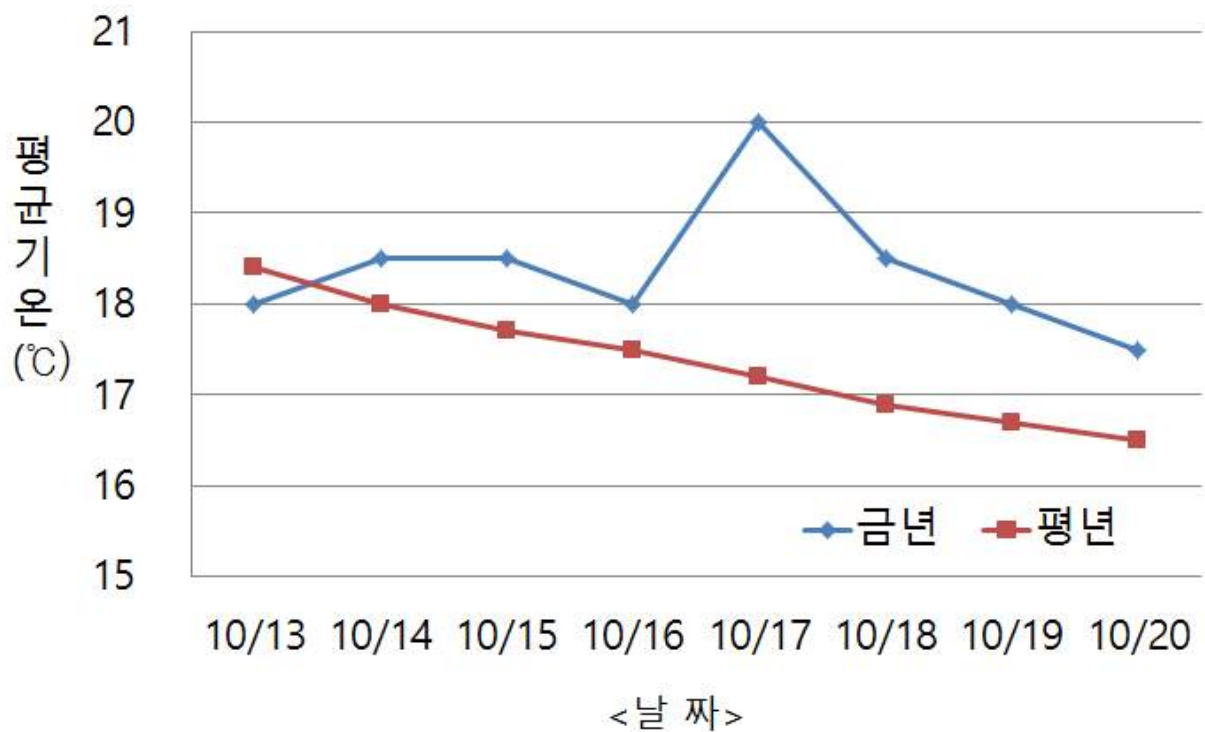


<날 짜>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8.4	17.4	1.0	21.6	21.2	0.4	15.1	14.1	1.1	1.2
10. 13.(목)	18.0	18.4	-0.4	20.0	22.3	-2.3	16.0	15.1	0.9	2.7
10. 14.(금)	18.5	18.0	0.5	23.0	22.0	1.0	14.0	14.7	-0.7	1.4
10. 15.(토)	18.5	17.7	0.8	23.0	21.6	1.4	14.0	14.3	-0.3	1.0
10. 16.(일)	18.0	17.5	0.5	21.0	21.4	-0.4	15.0	14.1	0.9	0.9
10. 17.(월)	20.0	17.2	2.8	24.0	21.0	3.0	16.0	13.9	2.1	0.8
10. 18.(화)	18.5	16.9	1.6	21.0	20.7	0.3	16.0	13.7	2.3	0.5
10. 19.(수)	18.0	16.7	1.3	21.0	20.4	0.6	15.0	13.5	1.5	0.7
10. 20.(목)	17.5	16.5	1.0	20.0	20.3	-0.3	15.0	13.3	1.7	1.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양념채소 (건고추 · 마늘 · 양파 · 대파) 관측

- 건고추·대파 도매가격 지난달 대비 약세, 마늘·양파는 보합세 전망
 - 건고추 2016년산 생산량이 감소하나, 이월 재고량이 많아 가격이 지난달 대비 약세인 6,100원/600g 전망
 - 깐마늘 재고량이 적어 가격이 평년보다 높으나, 지난달 대비 보합세인 7,000원/kg 내외 전망
 - 양파는 2016년산 재고량 증가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으나, 지난달 대비 보합세인 900원/kg 내외 전망
 - 대파는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으나, 지난달 대비 약세인 1,700원/kg 내외 전망
- 2017년산 마늘 재배의향 지난해 대비 증가, 양파는 감소 전망
 - 건고추 2016년산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지난해 대비 10~15% 감소 전망
 - 마늘 2017년산 재배의향은 2016년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8~11% 증가 전망
 - 양파 2017년산 재배의향은 2016년산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대비 4~6% 감소 전망
 - 10~12월 대파 정식의향은 출하시기가 비슷한 겨울대파 재배면적 증가로 지난해 대비 3% 감소 전망

엽근채소 (배추 · 무 · 당근 · 양배추 · 감자) 관측

□ 배추 가격 출하지역 확대로 지난달보다 하락할 전망

- 배추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출하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격이 지난달보다 낮은 9,500원/10kg 내외 전망
- 무는 준고랭지 2기작 출하량 감소와 가을무 출하 지연으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21,000원/18kg 내외 전망
- 당근·양배추는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각각 37,000원/20kg, 7,500원/8kg 내외 전망
- 감자(수미)는 고랭지감자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21,000원/20kg 내외 전망

□ 가을배추·무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초기 부진했던 생육은 적절한 강우로 회복

- 가을작형 재배면적은 배추·무·당근·양배추가 지난해보다 3~7% 감소하나, 감자는 4% 증가
- 가을작형 생육은 정식이나 파종 직후 가뭄으로 부진하였으나, 생육기 적절한 강우로 작황 회복
- 겨울작형 재배(의향)면적은 배추·당근·감자가 지난해보다 2~13% 감소하나, 무·양배추는 3~4% 증가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10. 10.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0/10)	2주일전 (09/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29,400	33,800	34,000	38,600	40,600	↓ 23.8	↓ 27.6
	콩(백태)	35kg	152,000	152,000	152,000	137,000	181,093	↑ 10.9	↓ 16.1
	고구마(밤)	10kg	25,600	26,400	27,800	22,600	23,227	↑ 13.3	↑ 10.2
	감자(수미)	20kg	24,800	25,200	25,500	24,800	25,413	-	↓ 2.4
채 소 류	배추(고랭지)	1kg	1,260	1,980	2,210	473	585	↑ 166.4	↑ 115.4
	양배추	10kg	10,400	9,100	9,100	5,350	6,850	↑ 94.4	↑ 51.8
	오이(다다기계통)	10kg	33,333	32,333	35,250	19,333	19,228	↑ 72.4	↑ 73.4
	애호박	8kg	26,400	21,600	39,350	13,150	13,623	↑ 100.8	↑ 93.8
	토마토	10kg	39,000	28,200	33,350	22,100	32,767	↑ 76.5	↑ 19.0
	당근	20kg	51,000	44,600	46,250	33,950	45,387	↑ 50.2	↑ 12.4
	건고추(화건)	60kg	584,000	640,000	647,500	827,000	936,333	↓ 29.4	↓ 37.6
	풋고추	10kg	49,000	56,600	101,500	18,950	29,547	↑ 158.6	↑ 65.8
	마늘(깐마늘)	20kg	140,000	140,000	140,500	133,000	110,800	↑ 5.3	↑ 26.4
	양파	20kg	19,400	18,600	18,300	28,400	18,787	↓ 31.7	↑ 3.3
	대파	1kg	2,410	2,470	2,320	1,863	1,538	↑ 29.4	↑ 56.7
	파프리카	5kg	26,400	25,400	32,050	15,000	27,733	↑ 76.0	↓ 4.8
	멜론	8kg	22,600	19,800	22,900	20,300	22,700	↑ 11.3	↓ 0.4
	방울토마토	5kg	31,000	21,400	24,100	12,850	17,540	↑ 141.2	↑ 76.7
	수박	1개	12,400	14,800	15,450	10,000	9,920	↑ 24.0	↑ 25.0
과 일 류	사과(홍로)	10kg	31,600	34,200	44,600	30,450	30,851	↑ 3.8	↑ 2.4
	배(신고)	15kg	37,000	41,800	48,850	40,550	36,490	↓ 8.8	↑ 1.4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른(%)	
		판매 단위	당일 (10/10)	2주일전 (09/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4,000	526,000	544,500	530,000	553,133	↓ 1.1	↓ 5.3
	느타리버섯	2kg	13,200	14,200	19,600	11,950	12,273	↑ 10.5	↑ 7.6
	새송이버섯	2kg	9,800	8,800	9,750	7,900	8,273	↑ 24.1	↑ 18.5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065	7,978	8,008	7,619	6,718	↑ 5.9	↑ 20.1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88	2,176	2,015	1,885	1,752	↑ 5.5	↑ 13.5
	닭고기	1kg	5,421	5,607	5,135	4,877	5,627	↑ 11.2	↓ 3.7
	계란(특란)	30개	5,608	5,528	5,638	5,712	5,630	↓ 1.8	↓ 0.4
	우유	1리터	2,524	2,555	2,551	2,547	2,438	↓ 0.9	↑ 3.5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10. 10.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른(%)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586 천원	5,979 천원	5,882 천원	↓ 6.5	↓ 5.0
	거세	6,950 "	6,991 "	6,909 "	↓ 0.5	↑ 0.5
송아지 (6~7월)	암	2,872 "	2,961 "	2,690 "	↓ 3.0	↑ 6.7
	수	3,811 "	3,804 "	3,357 "	↑ 0.1	↑ 13.5
육우(600Kg)		3,367 "	3,223 "	3,508 "	↑ 4.4	↓ 4.0
젖소수송아지(7일령)		333 "	352 "	312 "	↓ 5.3	↑ 6.7
돼지(110kg)		324 "	367 "	328 "	↓ 11.7	↓ 1.2
육계(원/kg)		2,025 원	1,758 원	1,415 원	↑ 15.1	↑ 43.1
계란(원/특란10개)		1,266 "	1,282 "	1,193 "	↓ 1.2	↑ 6.1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0	↓ 28.5

※ 한우(거세우) 생산비 : 7,137원/마리 (△187) * (5,658 - 2,332 + 3,811 = 7,137)

('15년 생산비) ('15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빅데이터 활용 작물 생육·수확량 예측 프로그램 개발 첫발 때

— 농촌진흥청, 전남대학교와 공동 추진, 온실 경영성과 작물생산시스템 안정성 확보 —

- 광양시가 농촌진흥청,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작물의 생육 및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시설재배온실의 경영성을 개선하고 작물생산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 개발은 파프리카, 소과종 토마토 등 과채류의 온실 내·외부환경, 작물의 생장·발육량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진한다.
-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파프리카·토마토 등 과채류 시설재배 면적과 온실 복합환경제어 및 수경재배 시설을 갖춘 대규모 온실이 증가하고 있어 과채류 가격 하락에 대한 대비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수치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온실시설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작물 생육량을 예측해 작물 성장에 필요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또한 유인, 순제거, 병해충 방제 등과 같은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적정 작업량, 시기를 조절하고, 연료량 등도 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작물수량 증대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강인근 농업연구사는 “이번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광 부족시기 및 고온기 작물재배를 위한 다양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 광양시 선진농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곡성군, '귀농인의 집' 입주문의 쇄도

- 최근 몇 년 사이 귀농·귀촌 최적지로 떠올라..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최근 몇 년 사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로부터 '귀농인의 집' 이용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귀농인의 집은 도시민이 농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지역에 대해 알아가고 토지 구입과 주택 신축 등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곡성군은 '귀농인의 집'을 곡성읍과 석곡면, 겸면 총 3개소(6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세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
- 곡성읍에 소재한 '귀농인의 집'은 2박 3일 단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석곡면 '귀농인의 집'은 2세대가 3개월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난방비, 전기료 등 최소 실비만 받고 운영된다.
- 겸면 '귀농인의 집'은 오래된 보건진료소를 원룸·투룸형 등 3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예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 지난 9월 준공식을 마쳤다. 거주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입주비는 원룸이 월 7만원, 투룸은 10만원, 쓰리룸이 13만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편이며, 전기·상하수도 요금, 난방비 등 실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 특히, '겸면 귀농인의 집'은 입주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현재 서울·경기지역에서 2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 10월 중순이면 나머지 1세대도 입주를 마칠 계획으로, 도시민들은 곡성에서 안정적인 귀농·귀촌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 곡성군은 겸면 귀농인의 집 준공과 입주민 환영을 위한 입주식을 오는 10월 28일에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 개최할 계획이다.

* 출처 : 곡성군



■ 고흥군, 농수산물 가공업체 수출역량 강화 총력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관련기관 합동설명회 가져 -

- 고흥군은 지난 5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등 수출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관내 농수산물 가공업체와 농어업인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물 생산 및 가공업체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 군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수출을 진행 중에 있거나 준비단계에 있는 농어업인과 가공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 주요 내용은 △중기청의 수출절차 및 무역실무 기초 교육 △KOTRA·중기청·aT의 수출지원 사업 안내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외 수출을 위한 식품인증 방법 설명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설명이 있었다.
- 또한,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설명회 진행 후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수출과정이나 준비단계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 설명회 참석한 박병종 고흥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수산물 생산,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수출관련 기관과 행정,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축산 경쟁력 강화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축산농가 생산비, 노동력 절감, 악취저감 앞장 -

- 보성군에서는 축산농가 생산비, 노동력 절감 경쟁력 강화사업과 축사 악취저감 환경개선 사업 등 총 7건의 사업비 2억여원을 확보하고 축산 신기술보급 및 군 자체 발굴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축산 신기술보급 사업에는 ICT를 접목 스마트폰으로 번식률 및 개체 기록관리가 가능한 소 번식 효율향상 시범사업, 농촌진흥청에서 특허를 보유한 미생물을 활용하여 양돈장 냄새 저감사업, 농산 부산물 이용 발효사료화 시범사업,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 가축 질병 조기진단 및 가축 위생관리 향상 기술보급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소득에 앞장서고 있다.
- 군 자체사업으로는 조사료 자동절단 급이기, 유기농 녹차 생산을 위한 흑염소 사육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이번에 공급된 ‘조사료 자동절단 급이기’는 조사료를 잘게 잘라서 공급함으로써 조사료 섭취율 및 소화 효율이 높아지고 조사료 허실이 적다.
- 또한 래핑된 비닐만 제거한 후에 곤포 사일리지를 통째로 절단하여 자동으로 급여가 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대폭 절감하고 곰팡이균, 암모니아 가스 악취로 인한 질병 및 악성 노동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한 조사료 자동절단 급이기 사업은 농가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시범 운영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보성군



■ 화순군,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목 ‘암빈’ 수확 한창

- 10농가 1ha 재배,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육성 중인 아열대 작목 암빈(히카카)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 암빈은 아삭한 식감에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생식, 깍두기, 물김치, 회무침, 볶음,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
- 김갑섭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2일 능주면 남정리에 소재한 한실농장(대표 배준수)을 방문해 암빈 재배현황을 청취하고 격려한 뒤, 적극적 판로개척에도 앞장서 주길 당부했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15년 암빈을 4곳, 0.3ha 면적에 실증 보급 한데 이어, 올해는 암빈 무지주 재배를 10곳, 1ha 면적에서 모종 재배와 종자파종 재배를 확대 보급해 수확기간 연장 및 다수확 재배로 성과를 올리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가소득 증진을 꾀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미 발굴된 작물은 생산비 절감과 수확량 증대를 위해 체계적인 재배연구와 기술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화순군



강진군, 딸기 정식 후 재배관리 노하우 전수받다

- 품목별(딸기) 상설교육 실시해 -

- 전남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9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품목별(딸기)상설 교육을 실시했다.
- 현재 강진군에서는 160여 농가가 51ha 면적에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딸기정식 후 시설 하우스 내 토양·습도·온도관리 등의 고품질·다수확 딸기생산을 위해 재배농가 및 교육 희망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 강의를 진행한 한국원예기술정보센터 정범윤 원장은 수년에 걸친 풍부한 현장경험과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원예(딸기)분야 전문가로 건전한 딸기육묘관리, 정식초기 양수분 관리, 병충해 관리 등 딸기재배 전반에 걸쳐 유머와 명쾌한 강의로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이동근 소장은 “딸기재배는 건실한 육묘생산과 정식 후 초기 토양·온도·습도 등 시설환경관리가 고품질 다수확 딸기생산에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시설환경제어기술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면서 “딸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정책지원도 필요하지만 딸기 재배농가 간의 정보교류와 딸기선도 농업인의 노하우 전수 등의 희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강진군



■ 해남군, ‘해남황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추진

- 특허청 출원 신청 완료, 황칠산업 기반 구축 탄력 기대 -

- 해남군은 지난 9월 28일 사단법인 해남군황칠협회와 함께 땅끝 해남의 대표 특산물인 ‘해남황칠’에 대해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신청을 완료했다.
- 해남황칠의 단체표장 출원은 황칠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땅끝 해남의 대표 특산물인 황칠에 대한 차별화된 명성 유지와 생산 농민들의 실효적 권익보호로 황칠 명품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해남황칠’이 특허청에 등록되면 해남지역에서 생산된 황칠 외에는 해남황칠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단체표장 등록 시 향후 타 지역 생산 황칠에 해남황칠 명칭을 도용, 도·소매 및 인터넷이나 노점판매 시 민·형사 처벌 및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상표법상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 해남군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해남김’과 ‘해남세발나물’ ‘해남전복’에 이어 네 번째이다.
- 해남군은 오랜 전통을 가진 해남 황칠나무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현산면 월송리 등지에 황칠나무 25ha를 식재 완료하는 등 황칠나무 재배를 규모화 해 연중 공급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 출처 : 해남군

■ 장성군, 북일면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 투입

- 2017~2018년 2년간.. 마을도로, 상하수도, 공원, 복지회관 등 생활 인프라 조성 -

- 장성군 관계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국비 16억 원을 포함해 총 20억을 투입, 북일면에 생활편의시설과 문화·복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을 개발해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복지 시설을 구축하는 정주권 사업으로, 특히 낙후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마을기반은 물론 공원, 체육시설, 마을회관과 같은 복지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지원 가능한 사업은 크게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마을기반 정비사업과 농촌경관 개선사업, 문화·복지 시설사업, 환경보전시설 등이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결정된다.
- 군은 이를 위해 북일면 주민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까지 정비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타 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 북일면은 장성지역에서 비교적 인구가 적고 타 지역에 견주어 상권이나 기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면으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보인다.
-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의 모든 지역이 누구에게나 ‘살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주민들이 문화, 복지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도록 수준 높은 정주권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장성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여수 농수산물 LA한인축제로 3억 2천만원 매출 올려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LA한인축제 및 우수농수산물엑스포에 참가해 지역 농수산물의 판촉활동을 벌여 3억 2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 이번 축제에는 지역 대표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업체인 한려영어조합법인과 거문도해풍축영농조합 등 7개 업체에서 41개의 품목을 출품해 현지 교민들에게 여수의 맛과 향수를 깊이 각인시켰다.
- 여수시는 현지 교민들과 대형마트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갯김치와, 멸치·건홍합·젓갈류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벌였다. 젓갈·멸치 등 일부품목은 행사 도중에 물량이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 지난해 8개 업체가 참여해 3억 5,0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는 7개 업체가 3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업체 수 대비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은 새로운 전략으로 보완해 좀 더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행정지원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여수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LA한인축제에 참가해 총 12억 4,000만원의 판매실적과 31억 2,2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 출처 : 여수시

■ 제주산 레드키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수출 성공

- 싱가포르 등 4개국 300여톤 규모 선박 수출 진행 -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은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이 올해도 제주산 레드키위 등 300톤을 싱가포르 등 4개국에 항공과 선박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출물량 175톤과 비교해 125톤 늘어난 수치로, 한라골드영농조합은 저온 저장한 레드키위를 400g 규격의 투명팩 포장으로 단가 3,000원에 수출할 예정이다.
- 앞서 한라골드영농조합은 지난달 27일 제주산 레드키위 1톤을 항공기로, 30일에는 레드키위 5톤을 선박으로 수출했다. 이달 중순경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레드키위 및 한라골드 그린키위를 현지 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골드키위 수출 협약식도 실시할 계획이다.
- 제주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육성한 키위를 일본과 러시아 등지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패션푸르트에 발생하는 신종바이러스 2종의 병징 및 특성

개발기술 내용

○ 신종바이러스 특징

분류	패션푸르트목질화바이러스(PWV)	등대풀잎말림바이러스(EuLCV)
분류	<i>Potyvirus</i> 속 사상형바이러스	<i>Begomovirus</i> 속 쌍구형바이러스
기주	패션푸르트, 땅콩, 강낭콩, 대두 등 콩과작물	파파야, 패션푸르트, 포인세티아, 토마토, 고추 등
전염	즙액전염, 진딧물전염	묘목전염, 담배가루이전염
증상	괴사반점, 모자이크, 주름, 기형	잎말림, 엽맥비대 및 위축증상



【황화 증상】



【잎말림 증상】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패션푸르트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대농민 홍보 및 리후렛 발간

기술개발 파급효과

○ 패션푸르트 신종바이러스 발생 차단으로 피해확산 저지 및 생산성 향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고숙주

■ 파파야 관상용 분 재배를 위한 적정 분 크기

□ 개발기술 내용

○ 관상용 파파야 재배를 위한 적절한 분 크기와 상토 필요량


- 관상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파파야 수고를 낮추고 안정적인 과일 착생을 위해서 분의 크기는 중형분(지름 60×높이 40cm), 상토량 40L를 넣고 파파야 묘목 정식하면 재배 관상가치 높은 분화생산이 가능함

○ 파파야 분재배시 분 크기별 왜화율 및 관상가치

- 재배형태 및 시험품종 : 비가림하우스, 일승목과(실생 1년생)

분 크기	왜화율 (%)	착과수 (개/주)	중 경 (cm)	횡 경 (cm)	관상 가치
대형분	33	2.0	12.7	10.1	+++
중형분	37	1.7	7.3	5.2	++++
소형분	44	0.7	-	-	+
토경	0(243cm)	27	15.7	11.9	++

관상가치 →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남부지역 기후 온난화 대응 새로운 과수 작목으로 육성 정보제공
- 열대 과수 파파야 현장기술 지원 및 교육 자료로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 파파야 수고 왜성화율 : 37% (100 → 63%)
- 남부지역 따뜻한 겨울 기후를 활용한 새로운 관상과수로 활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박재옥, 변만호

■ 왕지네 대량생산에 적합한 용토 및 사육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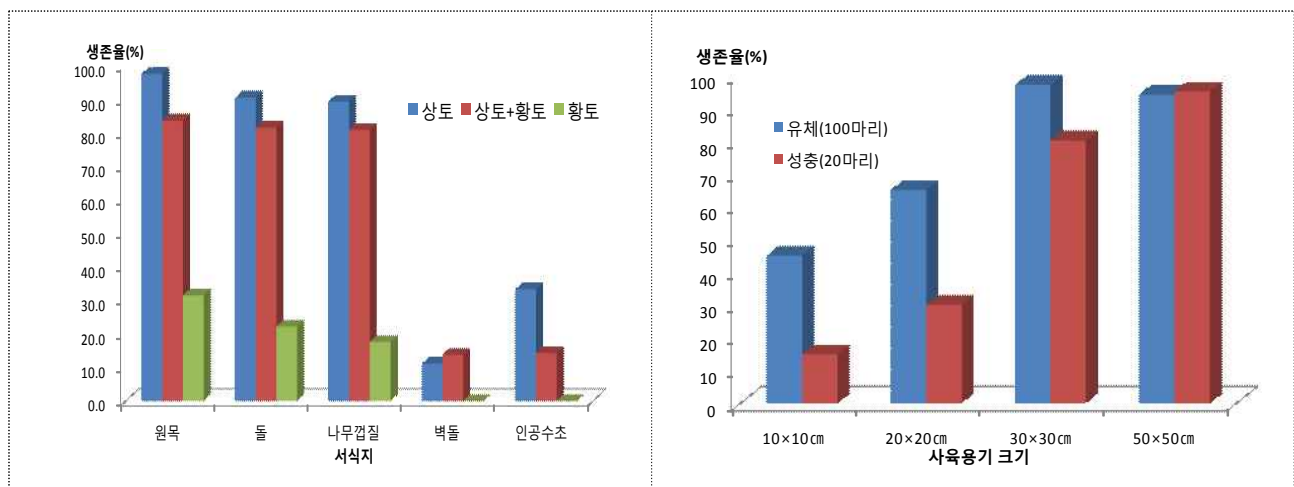
□ 개발기술 내용

○ 왕지네 대량생산 시 바닥재에 적합한 용토 : 원예용 상토

- 습도 유지가 편하고 생존율이 높고 관리가 용이하며, 서식처로는 원목, 원목껍질, 돌이 효과적임

○ 왕지네 유체 및 성충의 적정 밀도

- 1m²당 대량사육은 유체 2,500마리, 성충 200~250마리가 적당함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관심 사육농가 컨설팅 및 사육 기술이전 및 보급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왕지네 사육 시 원예용 상토를 바닥재로 이용 : 생존율 60% 증

○ 왕지네 사육 상토 구입 비용절감 : 33~40%(기존 450천원/165m²당)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 김선곤

■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한우 섬유질 배합사료 현장 실증

□ 개발기술 내용

- 농산부산물의 현황 조사 및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농산부산물 선정
 - 맥주박, 버섯배지, 콩비지, 미강, 맥강 등
-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한우 사육단계별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 실증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사양표준(2012)을 활용한 사육단계별 배합비 작성
 - 실증농가 비육우 사육단계별(육성, 비육전·후기) 섬유질배합사료 제조·급여
 - 가소화영양소총량(TDN)을 고려하여 배합, 육성기(70), 비육전기(75), 비육후기(80%)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농산부산물 활용 섬유질배합사료 급여 자가 배합비 작성기술 확대
- 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의 사료적 가치 조사 및 이용 기술농가 적용
- 농산부산물 사료화 이용 기술 확대를 위한 권역별 거점농가 육성

□ 기술개발 파급효과

- 한우 거세비육우 도체 육질등급(1등급 이상) 개선 : 12%(77 → 89%)
- 생산비(사료비) 절감 : 236천원/두(2,982 → 2,746천원)
- 생산비 절감 및 조수입 증가로 출하소득 향상 : 863천원/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유대중



■ 태풍 후 농작물 관리요령

- 태풍대비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제18호 태풍 ‘차바’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리고 우리지역 남해안을 통과함에 따라 태풍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사후 대책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벼 : 황숙기 쓰러진 벼는 가능한 빨리 반대 방향으로 제쳐주고 비건 후에는 신속히 수확한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벼는 신속히 물을 빼주고, 흙이 묻은 벼는 씻어준다.
- 밭작물 : 가을배추·무 등은 줄기와 잎이 크는 과정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 정비를 철저히 하여 습해를 예방한다. 비 건 후에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적용약제를 살포하고 씻겨 내린 흙은 보완해 준다.
- 과수 : 수확기에 접어든 사과·배·단감 등 과실은 가능한 빨리 수확한다. 쓰러진 나무는 바로 일으켜 세우고 강풍에 찢어진 가지는 제거 후 약제를 살포하여 병의 침입을 방지한다.
- 축산 : 가축의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급수기를 수시 청소하고 축사 소독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풍환기 및 수시 분뇨 제거로 유해가스 발생을 방지한다.
- 시설물 : 피복한 비닐 및 피해가 경미한 기자재 등은 오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준다. 복구가 가능한 하우스는 신속히 복구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하우스는 가능한 일찍 철거한다. 양액재배 시설 침관수 시 베드 청소 및 소독 실시 후 양액공급 또는 작물재배를 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여주 2기작 가을 시설재배기술 개발

- 7월 하순에 심어 9월 상순에 첫 수확 후 11월 하순까지 수확 가능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남부지방의 기후적 특성을 살려서 무가온 시설하우스를 이용, 여주 봄 조기재배와 가을 억제재배를 조합한 1년 2기작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 최근 다문화 가정의 늘어나고 있고 건강 기능성 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혈압 예방에 좋고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카란틴 성분이 들어 있어 '천연 인슐린'으로 불려지고 있는 여주는 건강 기능성 식물로써 소문이 퍼지면서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전남 지역의 여주재배는 '10년부터 1ha가 재배되기 시작한 이래 올해는 해남·강진·장흥·신안·여수 등에서 195농가에서 45.1ha가 재배되고 있으며 가격은 봄 조기재배 생산용은 kg당 4~5,000원 정도 높게 거래되어 10a당 조수익도 600~1,000만원 정도를 올렸으나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100ha까지 늘어나면서 7~8월 생산과잉으로 판매가격이 kg당 500원까지 하락하고 있다.
- 이에 전남농기원에서는 전남의 따뜻한 기후적 특성을 살려 여주를 무가온 시설재배로 7~8월의 과잉 출하기를 회피하여 3월 상·중순에 심어 1년 중에서 여주 가격이 가장 높은 5월 중순~7월 하순까지 2개월 정도 수확하는 1기작 봄 조기재배를 실시하여 가격이 높은 시기에 수확하고 가격이 떨어질 무렵에 수확을 종료한다.



-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다 7월 상순에 종자를 파종하여 사전에 20일 정도 키운 여주 묘를 7월 하순경에 정식, 관리하여 타 지역에서 여주 수확이 완전히 거의 끝난 시점인 9월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하여 11월 하순까지 무가온으로 재배하는 2기작 가을 억제 재배기술을 도입하면 수확기간 연장으로 인한 생산성은 46% 높아지고 희소가치 증대로 판매 단가는 여름철 출하기에 비해 3배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1년생 박과 채소작물인 여주는 가을 찬바람이 불어 오는 9월이 되면 식물체의 활력이 떨어져 잎이 누렇게 변하고 과일 생장속도가 늦어지면서 크기가 작아져 수확이 끝난다.
- 그러나 2기작 가을 억제재배는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되어 돈이 안 되는 7월 하순에 봄 재배수확을 일찍 수확을 중단하고 식물체를 다시 심어 일반적 재배관리를 통해 야간 온도를 17℃ 이상 유지하면서 원활한 양분공급으로 9월부터 11월 하순까지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한 여주를 생산할 수 있다.
- 한편 여주의 2기작 가을재배 기술을 개발한 도 농기원의 손동모 연구관은 “지금의 생산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과로 소비할 수 있는 요리방법과 가공품 개발은 물론 타 지역과의 중복되는 재배시기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틈새 소득 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사일리지 품질 최고인 사료용 보리 다청 개발

- 추위와 쓰러짐에 강하고 건물수량 ha당 12.1톤으로 많아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조사료 수량이 많고 사일리지(담금먹이) 품질이 우수한 사료용 청보리 '다청'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다청'은 건물수량이 ha당 12.1톤으로 대비 품종인 '영양'보리(11.1톤)보다 약 9% 많고, 천알의 무게는 30.3g으로 소립 품종이다.
- 풀길이는 99cm로 큰 편이지만 줄기가 굵어 쓰러짐에 강하다.



▲ 다청 출수기

▲ 다청 황숙기

- 출수기는 4월 25일이며, 수확적기인 황숙기는 5월 27일로 '영양보리'와 같다.
- 또한, 재배 적응지역은 1월 최저 평균기온 -8°C 이상인 곳으로 중북부 산간지방을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 '다청'의 총 가소화 영양분(TDN)은 64%로 '영양'보리에 비해 약간 낮으나 젖산함량이 많고 초산과 낙산함량이 낮아 사일리지 품질이 1등급으로 매우 우수한 품종이다.
-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오영진 박사는 “앞으로도 국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가축기호성이 높은 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재배 쉬운 우리 품종 느타리 솔타리 나왔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5일 충북 음성 농가(연우버섯)에서 느타리 국산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새 품종 ‘솔타리’ 현장 평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평가회는 느타리 재배농가가 참석해 국산 새 품종과 기존에 많이 재배하는 외국 품종과 비교, 평가하는 자리이다.
- 느타리 새 품종 ‘솔타리’는 농촌진흥청 버섯과가 2015년에 개발한 품종으로 현재 많이 재배되고 있는 느타리 외국 품종인 ‘수한’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솔타리



▲ 수한

- ‘솔타리’는 자실체 갯이 진한 흑회색이며, 대는 굵고 긴 모양의 고품질 품종이다.
- 또한 수량이 많으면서 육질이 부드럽고 탄탄해 앞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한’ 품종과 비교 시 수량은 병(850ml) 당 약 176.5g으로 ‘솔타리’가 많고, 고온에서도 잘 자라는 중고온성 품종으로 재배환경에 덜 민감해 재배가 좀 더 쉽다는 장점이 있다.

- 이 자리에서 느타리 재배농가와 종균업체 종사자들이 자실체 형태 평가와 설문조사를 한다.
- 또한 농가에서 재배한 기존 품종인 '수한'과 '솔타리' 두 품종의 맛 평가도 진행한다.
- 농촌진흥청 버섯과 오민지 농업연구사는 “이번 현장평가회를 통해 느타리 새 품종 ‘솔타리’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품종의 장·단점을 파악해 앞으로 품종 육종에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남부지역 가을감자 재배지 감자역병 발생 예보

- 9일부터 역병 발생 예측... 예방과 초기 방제 철저히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감자역병 예찰 프로그램을 통해 남부 지역 가을감자 재배지의 역병 발생을 예측한 결과, 9일부터 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당 지역 농가와 씨감자 생산 기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 감자역병에 의한 피해



▲ 병든 감자



▲ 감염된 잎



- 감자역병(*Phytophthora infestans*)은 서늘한 온도(10~24℃)와 다습(상대습도 80% 이상)한 조건에서 발생하는데, 최근 남부 지방 감자 재배지의 기상조건을 고려할 때 9일경부터 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남부지방 가을감자 주요 재배지인 남원·보성·해남·밀양 등에서는 감자역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감자밭을 둘러본 뒤 감자역병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면 보호용 살균제를 뿌려 병원균이 감자에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 감자역병 보호용 살균제는 만코제브(mancozeb), 사이아조파미드(cyazofamid),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파목사돈(famoxadone), 플루아지남(fluazinam) 등이 있다.
- 이미 감자역병이 발생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치료용 살균제를 뿌려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이때 계통이 다른 치료용 살균제들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번갈아 뿌려주면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치료용 살균제로는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에타복삼(ethaboxam) 등이 있으며, 5~10일 간격으로 뿌려주면 된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김주일 농업연구사는 “감자역병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발생초기에 알맞은 방제를 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전체로 퍼져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라며, “감자역병 발생 직전과 발병 초기에 살균제를 살포해서 감자역병 발생 예방과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순천대, 한우 산학연협력단 생산비 절감 성과

- 사료비 절감 프로그램 도입, 생산비 40% 낮춰 -
- 순천대학교 전남 한우 산학연협력단(단장 박광욱 교수)에서는 농가에 맞춤형 사료비 절감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생산비 40%을 낮춰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한우 사육에 있어 생산비 중에서 사료비 비중은 40~50%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료비를 얼마만큼 절감하는지에 따라 한우농가의 경영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 전남 한우 산학연협력단에서 농가에 컨설팅하고 있는 사료비 절감 프로그램은 지역 내 수급 가능한 농식품 부산물을 선정하여 농장의 여건에 맞춰 배합비를 조성하고 발효사료 급여에 따른 사육단계별 사양관리 교육,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 사료비 절감 프로그램을 적용한 해남군 북평면에 거주하는 양만숙 농가(한우 85두)는 2014년 75,433천원이었던 생산비가 2015년에는 48,210천원까지 낮추어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전남지역 지역전략 품목으로 토마토·한우·오리·쌀 등 4품목을 정하고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에 국비 660백만원을 지원하여 대학에서 개발한 품목별 새기술을 활용하여 영농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있다.
- 전남 한우 산학연협력단 박광욱 교수는 “발효사료를 급여한 한우 농가에서는 사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축사 환경개선, 한우 건강증진 등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앞으로 갈색젖소 우유 먹을 수 있다

- 더위에 강하고 유단백률 높은 저지종... 국내서 잘 자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미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해 증식하고 있는 '갈색젖소' 저지종이 국내에서도 양호한 성장, 번식 상태를 보이는 등 안정적으로 육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전 세계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저지종 젖소는 홀스타인종에 비해 유량은 약 70% 수준으로 낮지만, 유지방율과 유단백률이 높고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유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다.



▲ 저지종 착유우 모습

- 저지종 젖소는 소형종으로 더위에 강하고, 초지 여건이 좋지 않아도 잘 적응한다. 유방염 등 발생률이 홀스타인에 비해 낮아 경제수명이 긴 특징이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홀스타인 젖소의 여름철 생산성 문제와 유제품 제조, 판매 및 체험 등 낙농분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캐나다에서 수정란을 도입해 현재 저지종 젖소 18마리를 생산, 사육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 낙농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사육에 따른 성장과 번식, 산유능력을 검정하고 있다.

- 지금까지 확인한 저지종 젖소의 특성을 살펴보면, 홀스타인종 대비 체중은 약 78%이며, 젖을 떼 후 24개월령까지 사료섭취량은 약 77.7%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저지종 젖소의 표준성장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 또한, 저지종 혈액 내 호르몬 분석을 통해 확인한 성숙 시기는 10개월령으로, 홀스타인에 비해 첫 교배(초종부) 시기를 2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어 큰 소(성우) 기준 최소 2개월 이상 사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점점 더워지는 여름으로 홀스타인 젖소의 우유 생산 능력과 번식능력이 저하돼 낙농가의 관리비용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14년부터 적용된 새로운 유대산정체계에 유단백 질률이 추가되면서 유고형분 함량이 높은 저지종 젖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자체 보유한 저지종 젖소 중 7마리가 우유를 생산하고 있어 조만간 국내에서의 산유특성을 확인하고, 경제성 분석 등 국내 저지종 도입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윤호백 농업연구사는 “6차 산업과 연계한 목장형 유가공 농가에서는 저지종 우유 특성을 이용한 유제품 제조, 판매를 위해 사육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곧 많은 농가에서 저지종 젖소를 도입해 사육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내 저지종 젖소 사육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농업·농촌 유망 일자리 직업탐구

◆ 초음파진단관리사

□ 어떤 일을 하나요?

- 초음파진단관리사는 축협, 사료공장의 농가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컨설턴트를 말하며 가축의 등심단면적과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를 측정해 적정 출하시기를 결정하고 사양관리를 변경하는 일을 합니다.
- 최근 초음파진단관리사들은 정밀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직접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농가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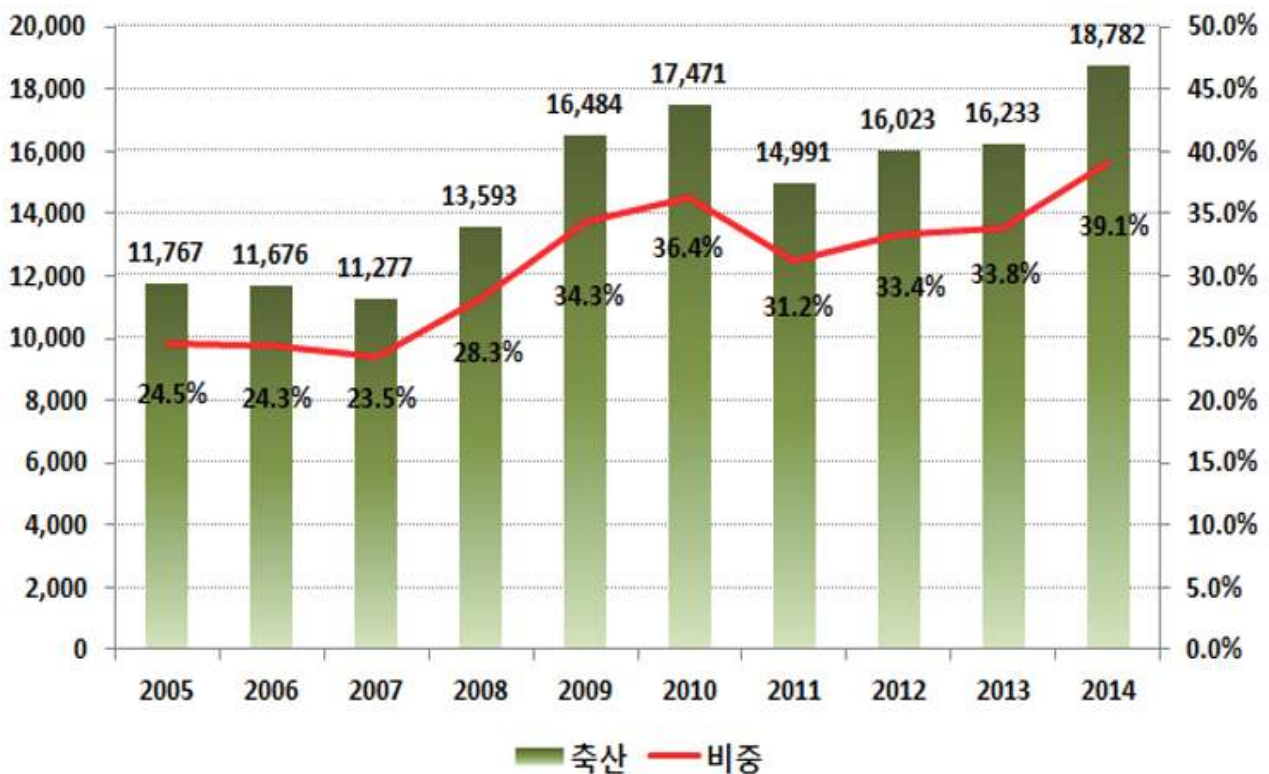
□ 관련 기관 및 학교는?

대학교	강원대, 건국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경상대, 상지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11개
전문대학	천안연암대학, 한국농수산대학	2개
특성화고	경남자영고, 공주생명과학고, 김제자영고, 김천생명과학고, 김해생명과학고, 여주자영농업고, 영서고, 천안제일고, 청주농업고, 한국생명과학고	10개
마이스터고	전남생명과학고	1개
지역축협	도시형, 농촌형 모두 포함	117개
품목축협	낙농, 양돈, 양계, 양봉, 양토양록	24개

자료 : 한국직업정보시스템(2014); 특성화고 포털(2014); 마이스터고 포털(2014), 지역조합의 유형별 사업현황과 구조개선의 시사점(2015, 지역재단)

□ 관련 산업현황과 전망은?

- 국내 축산물의 약 80%는 소(한육우·한우·육우), 돼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출하전 등지방두께(돼지), 근내지방도(소)를 측정하기 위해 대부분 초음파진단을 거치고 있습니다.
- 초음파진단을 통해 적정 출하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 축산물 생산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4년 기준 18조 7,820억원 수준이며 전후방 관련 산업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료 : 농림생산지수 및 생산액, 농림축산식품부

* 출처 : 농촌진흥청

8. 정책 동향

◆ '16년산 쌀, 연내 시장격리 등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발표

- 10. 6., 농식품부는 금년 수확기 쌀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예년보다 빨리 확정·발표
 - 올해 생산량 중 신곡수요 초과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내 시장격리
 - 통계청 예상수확량 발표 시점(10월)에 잠정 격리물량 산정, 실수확량 발표 시점(11월)에 최종 물량 확정
 - RPC 벼 매입자금 지원 확대(정부 1.4조원, 농협 1.6조원)를 통해 민간의 원활한 벼 매입 유도
 - 공공비축미(36만톤)와 해외공여용 쌀(3만톤) 매입을 연내 추진
 - 우선지급금은 45천원/벼40kg을 잠정 지급하고, 실제 신곡가격에 따라 10월 중 재산정
 -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에 수입 밥쌀 방출량을 감축 또는 중단하고, 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실시
 - 사료용쌀 추가공급, 해외원조 등 특별 재고관리 대책 추진
 -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적정생산, 소비확대, 농지규제 완화 등 정책간 연계 강화 및 쌀 직불제 등 중장기 개편 방안 마련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고추 ‘경계경보’ 발령 및 추가 수급대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16.9.30.(금) 제6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평년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전고추에 대해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상 위기단계를 심의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 위원회는 '16년산 전고추 생산예상량이 86천톤(KREI 추정)으로 전년대비 12천톤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여 햇고추 수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전체 재고량 30천톤(KREI 추정, 정부 13+민간17)을 감안 시 잉여량은 없으며 차년도에 18천톤을 이월하여 관리할 상황이다.
- 수급상 여건이 전년보다 양호함에도 전고추 가격은 도소매 및 산지 모두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도매 및 산지가격은 약하락세에 있음을 주목하였다.
- 이에, 위원회는 산지가격이 현재 경계경보 단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경계경보」 발령을 심의하였고, 농식품부도 전고추에 대해 「경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기 추진 중에 있는 '16년산 전고추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해 위원회는 가격상승의 장애요인인 정부 비축물량 소진과 햇고추에 대한 소비촉진 중심으로 중점 논의 하였다.
- 우선, 정부 비축물량 중 '13년산 5.8천톤 소진에 대해 수입산 대체와 '16년산 햇고추 판매를 연계한 방안이 제3국으로의 수출보다는 비축물량 소진 및 가격지지 등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 수입산 대체는 수입산 사용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 등을 대상으로 정부비축 물량 소진과 햇고추 농협 수매를 연계(예, 50:50) 하는 방안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이와 동시에 비축물량 수출 방안과 극빈층 대상 김장철 무상지원 등의 방안도 동시 검토하여 비축물량 소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국내산 소비촉진과 관련하여, 고추 주산지* 중심으로 지역별 건고추·고춧가루를 대상으로 전년과 같이 TV홈쇼핑(공영홈쇼핑)을 통한 집중 판매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 김장철 이전(10월말~11월말) 집중방송(12차례)할 예정이며, 우수 품질의 건고추 제품을 소비자가격 보다 20% 이상 싸게 공급한다.

* 충북(괴산·제천), 충남(청양·태안), 전북(정읍·고창), 전남(영광·함평), 경북(봉화·영양·청송·안동)

○ 또한, 이달부터 농협과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주관으로 고추 소비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농협계통매장(100개소) 할인판매, 농협직거래 장터(16개소) 특판을 동시 추진하며, 11월 중순 개최 예정인 “국민 행복나눔! 김장축제” 시 건고추 집중판매도 계획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올해 건고추 수급상황이 전년대보다 양호함에도 산지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 외식업체와 식품업체 및 소비자들께서 국내산 건고추를 적극 사용하여 주실 것과 상기 햇고추 판촉행사 등을 이용하시어 건고추 소비확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9. 해외 농업정보

◆ 콩과작물 연구개발 기술 태국에 전수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콩과작물에 대한 그동안 연구개발 경험과 기술을 태국에 전수했다고 밝혔다.
- 태국에서 온 연수생은 콩·녹두·동부의 품종육성과 노력절감 및 다수확 기술, 등을 자세하게 배워갔다.
- 이번 연수는 농촌진흥청 KOPIA(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센터의 예산을 지원받아 태국 차이낫작물연구센터에서 파견 온 연구원을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10일간 실시하였다.
- 녹두·동부의 연구개발 실적과 역량이 탁월한 전남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개도국 및 후진국 농업기술지원 프로그램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연수내용 중에서 한꺼번에 수확이 가능한 녹두와 동부의 품종, 콤바인수확 기술, 증식종자의 보급체계에 관심이 많아 작목별로 도내 주산지인 신안·영광·무안 지역의 농가를 방문하여 체험훈련을 강화하였다.
- 도내 농산물 유통업체 2개소를 방문하여 농업인과 업체 간의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한 공동발전 사례를 체험하고, 태국의 녹두 가공품 종류와 제조방법 등을 방문 업체에 전수하여 우리 업체는 신상품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 훈련을 담당한 식량작물연구소 김동관 연구관은 태국과의 상생적 협업으로 유용자원 확보 등을 통한 전남의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일본,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검토 본격화

- 일본 농림수산물성(農林水産省)과 소비자청(消費者廳)은 2016년 9월 12일 도쿄에서, 가공식품의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기준에 대한 제8회 검토회를 개최하였음
- 농림수산물성과 소비자청은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국가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수입산'으로 표시, 수입 중간가공품에 대해서는 가공지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농림수산물성과 소비자청이 검토한 원재료 원산지에 대한 국가별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 원재료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는 원재료가 일본산이라면 국산, 수입산이라면 원산지 국명을 표시해야함
 -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중량의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해야함
 - 원산지가 3개국 이상인 경우는 중량의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2개국 이상 표시하고, 기타 원산지를 '기타'로 표시해야함
- 검토회에서는 가공식품 라벨의 크기 제한으로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점과 중간 가공 원재료를 수입하여 일본에서 가공한 식품을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로 자국식품을 보호하고, 일본산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규격을 제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척도이므로 우리나라 식품도 HACCP 등 객관적인 안전성 인증 확보를 통해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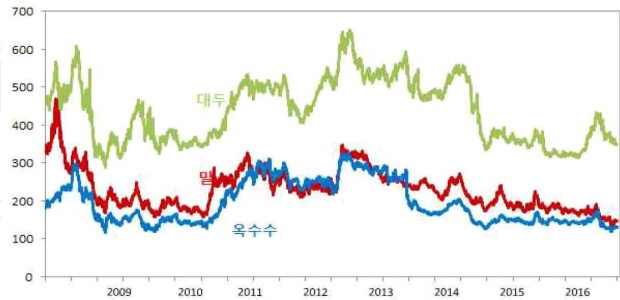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10. 07.(시카고 선물거래소)

달러화 강세 및 중서부 지역의 건조기후 예보로 옥수수 선물 가격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6.10.07)	전일대비	전월평균 ('16.9)	2015 평균
밀	144.99	▼0.3%	144	186
옥수수	133.70	▼0.2%	129	148
대두	351.48	▼0.2%	356	34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옥수수 가격 하락세에 동조하며 전일 대비 0.3% 하락 마감하였음. 뉴델리가 2주 전 수입 관세를 감소한 이후 트레이더들은 10월과 11월 인도 제분소에 공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밀 400,000톤을 구매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 적색 연질 밀 가격은 부셸 당 1센트 하락한 \$3.94에 마감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달러화 강세 및 중서부 지역의 건조기후 예보로 인해 전일 대비 하락 마감하였음. 분석가들은 다음 주 월간 수급 보고서에서 USDA가 대두 단수를 지난달의 에이커 당 174.4 부셸에서 173.5 부셸로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 당 0.25센트 하락한 \$3.40에 마감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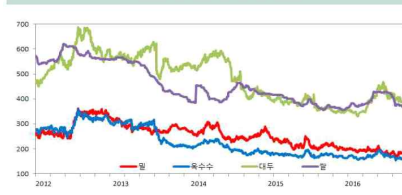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 가격은 수확이 진행되고 기폭적인 수확량이 예측이 되며 전일 대비 0.2% 하락 마감하였음. 분석가들은 다음 주 월간 수급 보고서에서 USDA가 대두 단수를 지난달의 에이커 당 50.6 부셸에서 51.5 부셸로 증가시킬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USDA는 민간 수출업자들이 알려지지 않은 국가에 대두 195,000톤을 수출했다고 보고하였음. 말레이시아 팜유 선물 가격은 산출량 증가 기대와 차익거래로 인해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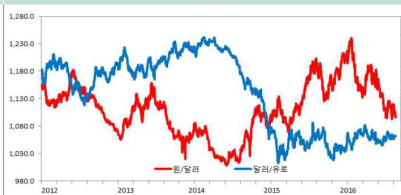
관련동향

- 겔프 만 대두 베이스는 중국 구매자들에 의한 새로운 수요로 상승하였음.
- 7일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합의 기대감 하락, 미 원유 시추기 수 증가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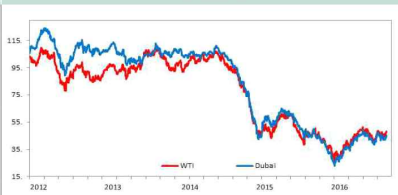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81	▼1.6%	환율	원/달러	1,111.3	▼0.2%
	옥수수	162	▼1.8%		달러/유로	1.1196	▼0.1%
	대두	387	▲0.3%	국제유가	WTI	49.81	▼1.2%
	쌀	367	—		Dubai	50.07	▲2.7%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1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10.06(수출가격), '16.10.07(환율), '16.10.07(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wonjeong@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농식품 홍보 미디어기자 위촉식 가져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촌문화와 농식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농업인 20명을 “미디어 기자”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 농촌과 농업을 잘 아는 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축제, 농작물 생육 및 수확과정을 방송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관광객 확대는 물론 재난재해를 신속히 알려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 미디어 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남농기원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블로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32명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 방송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9월에 4일간 실시하였다.
- 미디어 기자들은 농업·농촌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농촌 문화, 농식품, 지역축제들을 생방송을 진행한다.
- 또한 전남지역에 6개 라이브 방송채널을 개설하였으며, 12월에는 농업농촌의 현장을 동시에 생방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박사는 “전남 농식품과 농촌문화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미디어 기자단과 연계하여 라이브 방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대한민국 농식품 일자리 정보! 한 곳에서 한 눈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산업별로 흩어져 있던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농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한 눈에 손쉽게 관련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농식품 일자리 포털(www.agrijob.kr)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는 국가민간(위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채용사이트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비중이 낮고, 직업자격교육 등 관련정보가 분야별로 산재되어 접근 편의성과 정보제공 체계가 부족했었다.
- 이에 따라, 농식품 분야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인구직-교육훈련-자격-직업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농식품 일자리 포털”을 구축하여, 농식품 분야에 관심있는 청장년층이 한곳에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일자리 정보) 위크넷, 잡코리아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농식품 기업체, 농식품 분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채용정보를 연계하여 구직 희망자는 한 곳에서 농식품 분야 채용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직업정보) 농식품 분야의 직업별로 하는 일, 임금, 직무 만족도 등 직업정보와 더불어 농식품 유망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등 직업으로서 농식품 분야의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하여 청장년층의 신규 유입을 유도
- (자격교육정보) 국가·민간분야 자격증의 시험일정과 취득방법 등을 안내, 농림·식품분야의 온라인 교육정보를 지원함으로써 취·창업에 도움을 주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결실의 계절, 풍성한 가을이야기를 ‘소비공감’에서 만나보세요!

- 농식품 종합정보지 ‘농식품 소비공감’ 가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 소비공감은 소비자에게 우리 농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여 올바른 소비 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 온라인 웹진 형태로 처음 발간되었다. 2014년 겨울호부터는 잡지 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분기별로 연간 총 4만부(호당 1만부) 수준으로 발행부수를 대폭 늘렸다.
- 또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 주요 농협은행, 지자체 민원실, 대형 마트 문화센터, 종합병원 등에 배포하고, 푸드누리(www.foodnuri.go.kr)에도 웹진 형태로 게시하여 더 많은 소비자가 접할 수 있게 하였다.
- 농식품 소비공감은 우리 농식품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업인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담아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가을호는 ‘공감(共感)’을 주제로 농식품 공감, 지식 공감, 농촌 공감, 독자 공감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식품 공감에서는 가을철 대표 농산물인 호박을 주제로 종류별 특징, 영양효능, 보관법, 요리법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현미·팥·울무 등 햇곡식과 무화과의 영양효능, 요리법도 소개하여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다.
- 지식 공감에서는 지리적표시 인증을 받은 강원도 철원 오대쌀과 1인 가구 농식품 트렌트, 수확의 계절에 농사의 가치를 일깨우는 농식품 관련 도서를 소개하고 있다.

- 농촌 공감에서는 경북 영주에서 사과 농원을 일구는 귀농인과 농촌 체험휴양마을인 전남 담양 무월마을을 소개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가을철 농촌체험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독자 공감에서는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공동체지원농업 교육·체험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 농식품 소비공감 가을호 발간과 함께,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소중한 독자 의견을 듣기 위해 페이스북 이벤트를 실시하고 40명을 선정하여 농식품 제철 꾸러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농식품 정보누리의 공식 페이스북 ‘푸드누리’(facebook.com/infofoodnuri)를 통해 10월 5일부터 참여 가능
- 농식품부 서준한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농식품 소비공감 가을호는 제철 농산물, 농식품 트렌드, 귀농·귀촌, 농촌체험휴양마을, 소비자 교육·홍보활동 등 농업·농촌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실려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 소비공감을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농촌 가치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한글날 특집

□ 틀리기 쉬운 낱말 농업용어 (ㄱ~ㅍ)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1	가랭이	가랑이	26	높혀	높여
2	(공부를)가르킨다	가르친다	27	달달이	다달이
3	강남콩	강낭콩	28	(김치를)담귀	담가
4	건데기	건더기	29	덩쿨	덩굴
5	걸죽하다	걸쭉하다	30	(눈)이 덮힌	덮인
6	걸맞는	걸맞은	31	돋	돌
7	곰곰히	곰곰이	32	될수록	되도록
8	곶배기	곶빼기	33	뒷쪽	뒤쪽
9	그람	그램(g)	34	(정성을)드려	들여
10	굶뱅이	굶벵이	35	(~에)들리다	들르다
11	금새	금세	36	들녁	들녁
12	깊숙히	깊숙이	37	들여마시다	들이마시다
13	깎듯하다	깍듯하다	38	떠들석하다	떠들썩하다
14	깎대기	깎때기	39	떠별이	떠버리
15	꽃꽂이,꽃꽂이	꽃꽂이	40	뚝빼기	뚝배기
16	끔찍히	끔찍이	41	뜨게질	뜨개질
17	나무가지	나뭇가지	42	(곡식)멧돌	맷돌
18	남비	냄비	43	머릿기사	머리기사
19	넙적다리	넓적다리	44	머릿말	머리말
20	년도별	연도별	45	멋적다	멋쩍다
21	네 장(종이)	넋 장	46	모밀	메밀
22	넉두리	넋두리	47	목메이다	목메다
23	넌판지	넌빤지	48	묘자리	뫼자리
24	녹혀야겠는데	녹여야겠는데	49	무우	무
25	누른밥	눌은밥	50	밑둥	밑둥

* 출처 : 국립국어원



주간

전남농업정보

105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